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4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욕설을 침묵으로 갚다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자비(慈悲)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조출한 다상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일체지 수행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우체국 가는 길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4월 1일 발행, 통권 326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라

해나무 그늘 아래 앉아 산마루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속뜰에서는 맑은 수액樹液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 혼자서 묵묵히 숲을 내다보고 있을 때 내 자신도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있으면, 그저 넉넉하고 충만할 뿐 결코 무료하지 않다.

이런 시간에 나는 무엇인가 그지없이 감사드리고 싶어진다. 하루 스물네 시간 중에서 맑고 잔잔한 이런 여백이 없다면 내 삶은 탄력을 잃고 이내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올해도 모란은 흐드러지게 피었다. 겨울 날씨가 춥지 않아서였던지 예년보다 한 열흘 앞당겨 피어났다. 모란밭 곁에서 같은 무렵에 피어난 노란 유채꽃이 모란의 자주색과 아주 잘 어울렸다. 꽃의 빛깔과 모양이 같아서 유채꽃이라 했지만 사실은 갯꽃이다. 지난해 겨울 김장을 하고 남겨 둔 갯인데, 봄이 되니 화사한 꽃을 피운 것이다.

철새로는 찌르레기가 맨 먼저 찾아왔다. 달력을 보니 4월 9일, 쇠소리의 그 목청으로 온 골짜기를 울리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아주 반가웠다. 모란이 피어나기 시작한 날 밤에 소쩍새도 함께 목청을 열었다. 4월 16일로 적혀 있다. 잇따라 족두새(머슴새)도 왔다. 머지않아 피꼬리와 빼꾸기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철

새들이 찾아와 첫 인사를 전해 올 때,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내 마음은 설렌다. 새의 노래는(울음이 아니다) 잠든 우리 혼을 불러일으켜 준다. 굳어지려는 가슴에 물기를 보태 준다.

지난 4월 초, 남쪽 바다 한가운데 외떨어져 있는 섬 백도白島를 보고 오는 길에 거문도巨文島에 들렀었다. 거기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세워진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로 가는 동백나무 숲길에서 밀화부리 소리를 듣고, 나는 그날 종일 행복에 겨웠었다.

자연은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무상으로 열어 보이고 있는데, 일상에 찌든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받아들이 줄을 모른다. 받아들이기는 그만두고 얼마나 많이 허물며 더럽히고 있는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며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 찌든 버릇 때문에 모처럼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귀 기울이며 지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수첩을 펼쳐 보니 지난 4월 9일 오후로 적혀 있다. 할 일이 있어 외부로부터 방해 받고 싶지 않은 날은 신발을 부엌에 들여놓고 덧문을 닫아 버리는 때가 더러 있다. 그날도 읽던 책을 마저 읽으려던 참인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들려오는 소리로 보아 젊은 남녀 한 쌍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두 시간 가까이 여자 혼자서 뭐라고 연방 지껄여 댔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 냈다. 방음이 되지 않은 한옥이라 방 안에서 하던 일에 집중이 될 턱이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서 그 지결임이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되지도 않는 지결임을 아무 대꾸도 없이 듣고 있는 사내 녀석의 인내력이 나는 놀라웠다. 아마 그 녀석은 사랑에 빠진 모양이었다. 사랑에 빠지면 눈도 멀고 귀도 멀어 쓸데없는 지결임도 음악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서 썩 내려가라고 고함이라도 쳐 주고 싶은 생각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사랑에 빠져 머리가 빈 연인들이 무안해할까 봐 나 또한 인내력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쏟아 놓는 말을 누군가가 가까이서 듣고 있는 줄을 안다면 그렇게 도나케나 마구 쏟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명심하라. 누군가 반드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속 뜻을 열어 보임이다. 그의 말을 통해 겹겹으로 닫힌 그의 내면세계를 훤히 알 수 있다.

모처럼 꽃이 피어나고 새잎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신록의 숲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만할 텐데 사람들은 그럴 줄을 모른다. 일상에 때 묻고 닳은 자신을 그 어느 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입 다물고 귀 기울이는 습관을 익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데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가톨릭의 관상 수도자였던 토머스 머튼 신부는 그의

《관상기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으로 인해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고,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이만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내부는 비어 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그대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고 만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도 말을 해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내 인내력을 시험한 적이 있다.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는 나는 기차 여행 때는 으레 금연칸을 탄다. 금연칸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부녀자들이 주로 타게 마련이다.

그날도 나는 금연칸을 선택했다. 내 자리에서 한 줄 건너 앞자리에 어린애 하나를 거느린 30대 초반의 아주머니와 그의 친구인 듯한 그 또래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열차가 한강교를 지나자마자 아이를 거느린 아주머니가 친구를 상대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친구는 어쩌다 한마디씩 대꾸를 할 뿐 한쪽에서만 잠 시도 쉬지 않고 계속 지껄여 댔다. 아이도 지겨운지 말 많은 엄마 곁을 떠나 복도로 뛰어다녔다.

새마을 열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10분이 걸리는데, 부산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 여인은 잠 시도 멈추지 않고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계속 쏟아 놓았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한평생을 살아갈 남자는 귀머거리가 아니면 존경할 만한 인내력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날의 새마을호는 연료의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계속 쏟아 놓는 ‘입심’으로 달린 것이 아니었을까. 귀가 멍멍해진 채 부산역에 내린 그때의 내 느낌이였다. 그 뒤부터 나는 절대로 금연칸을 타지 않는다.

자신의 영혼을 맑히기 위해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켰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와 같이 타이르고 있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말하라.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높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 글을 끝맺으려는 바로 지금 첫 피꼬리 노래가 들려오고 있다. 5월 6일. 해마다 같은 시기에 찾아오는 이 놀라운 질서. 자연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에 견줄 때 얼마나 맑고 신선한가. 우리는 그 자연의 소리를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라.

1989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욕설을 침묵으로 갚다

지난 3월에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점점 커지는 세상'을 선물 하셨습니다. 4월 선물은 '욕설을 침묵으로 갚다'입니다.

부처님이 미가다의 왕사성 밖에 있는 죽림정사에 계실 때 그 근처의 지체 높은 바라문(이름은 바라드바자)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안의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출가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라문은 집안의 수치라 생각하여 부처님을 찾아와 노발대발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제1계급인 바라문 출신이 제2계급인 왕족(석가족)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수치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체면이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에게 불명예스러운 요소는 다 빼 버릴 텐데, 초기 경전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수록합니다. 이게 초기 경전이 지닌 특성입니다.

이런 때 부처님은 결코 상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잡자코 들으면서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노여움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음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부처님은 아래와 같이 반문합니다.

이런 경우, 할 수만 있다면 '아, 이걸 내가 남이 안 다니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믿기 때문에 내 참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참아 보십시오. 안으로 뭔가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아

무개라는 불명을 가진 불자인 나의 참는 덕이 몇 점짜리나 되는지, 불보살의 화현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느냐고 이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바라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부처님은 이와 같이 반문합니다. 저쪽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설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라문이여, 당신 집에도 친구나 친척 등 방문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당신 집에서는 손님한테 음식을 내놓은 일이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때 만약 손님이 음식을 들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할 수 없지요. 집안 식구들끼리 우리 집에서 먹을 수밖에요.”

부처님의 반문은 여기서 일단 끝이 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바라문에게 다시 말을 잇습니다.

“바라문이여, 방금 당신은 내게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지거리는 당신 것이요. 어서 추심하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의 욕지거리에 맞장구를 치거나 욕설로서 응수했다면 주인과 객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은 거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조금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그건 당신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소?”

바라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자 부처님은 계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난 사람에게 화내어 대꾸하면 거듭 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난 사람에게 화로써 갚지 않으면 그는 두 배의 승리를 얻는다.

남이 성내는 것을 보고 정념正念으로 자신을 진정시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 남을 이기게 된다.

집안에 화 잘 내고 골 잘 내는 사람 있으면 이런 글귀를 써서 화장실 같은 데 붙여 놓으십시오. 화장실에 가면 사람이 순수해져 아무 잡념이 없게 됩니다. 아무 잡념이 없을 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화장실에 붙여 놓는다고 해서 불경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써 두면 화장실이 화장華藏 세계가 됩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됩니다.

좋은 말씀을 혼자서만 외우지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외우려면 짤막 짤막한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더러는 벽에 써 붙여 놓으십시오.

이 계송을 듣고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깊이 뉘우쳐 부처님께 출가하여 제자가되었다고 경전은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פות이나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소리만 듣고 막연히 알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새겨져 함께 빛을 발하게 됩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자비慈悲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종교적인 이론이란 메마르고 딱딱하기 그지없다.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과 행위야말로 생기 있는 삶의 본질을 이룬다.

요 며칠 동안 34~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산중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사는 도시는 훨씬 더 무더울 것이다. 이런 날은 좌선도 독서도 혹은 글쓰는 일도 따분하다. 능률이 오르지 않을뿐더러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것은 사는 일이 될 수가 없다.

어제는 헛간에서 판자 쪽을 꺼내어 톱으로 썰고 대패로 밀고 망치로 못을 박아 다락에 놓고 쓸 받침대를 하나 만들었다. 급한 성미라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미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곰팡이를 피워 다른 일까지 어둔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리고 생각했던 일을 마치고 나야 또 다른 일로 옮길 수 있다. 한 자락 깔아 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헛간에 세워 두었던 판자가, 아무 표정도 없이 하나의 재료에 지나지 않던 그 판자가, 사람의 생각과 손질이 가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쓰임새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된 것이다.

또다르다 일에 열중하느라고 한낮의 더위도 잊어버렸

다. 일을 끝내고 그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의 흐뭇한 기쁨은 이 무더위 속에서 얻기 힘든 상쾌함이었다. 우물가에 내려가 샘물을 끼얹고 나니 마음과 몸이 날 듯 가벼워졌다.

오늘 해 질 녘에는 새로 꽃향기를 풍기기 시작한 치자나무와 채소밭에 샘물을 길어 뿌려 주었다. 시들시들 하던 화목과 채소들이 생기를 되찾으니 나 또한 생기와 잔잔한 기쁨이 배어 나왔다.

관계의 이웃이란 이와 같이 생기를 나누어 가짐이다. 며칠 전 큰 절 도성당에서 황선 스님이 읽어 보라고 건네준 G. 아귀에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란 소책자 속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

함께 있는 두 사람 사이를

가장 멀리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결여다.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의 유대다.

옳은 말이다. 한 지붕 밑에서 한술밥을 먹고 늘 치대면서 함께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10만 8천 리다(아주 먼 거리를 가리키는 불교적인 표현).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장의 말씨며 날씨에까지 마음을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그늘이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천 리면 지척도 천 리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 리도 지척이라는 말은 이런 소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여섯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순결로써 사귀를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예요. 친구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믿음과 신의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특히 친구지간은 더욱 그래야 해요.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친구지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믿음과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친할수록 예절을 갖추어야 해요. 예절이 뭐예요? 사람의 도리고 품위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믿음과 신의,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수단이나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만 남습니다. 잘 산 인생이라면 좋은 관계가 남고, 잘못 산 인생이라면 언짢은 관계만 잔뜩 남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거듭거듭 인간 형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는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를 일깨워 주니까요.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깨우쳐 주니까. 기쁨과 고통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5. 법정 스님 흔적



조출한 다상

곡우가 지나면 햇차가 나옵니다.

곡우는 청명과 입하 사이, 온갖 곡식을 윤택하게 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절기이지요. 이때 수확한 차는 최상품으로 여겨집니다.

은사 스님은 이 햇차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텅 빈 속을 차 한 잔의 향기로 채우시던 스님의 유일한

호사였지요.

조출한 다상에서 홀로 차 마시는 것을 즐겼던 스님은 붓 장난으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마시니 그 향기와 맛이 신기롭더라.”

찰잔의 ‘德祖’라는 글씨는 이 어리석은 제자를 위해 스님께서 직접 써 주신 것입니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일체지 수행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무승당해탈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神通력에 머물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과神通한 지혜를 증득하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삼매지三昧智 광명을 얻고, 모든 시기에 닦는 삼매지 광명을 얻고, 모든 경계가 다 생각을 의지해 있음을 아는 삼매지 광명을 얻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광명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어 구경지究竟智로써 둘이 없고 분별이 없는 평등한 법을 설하고, 밝고 맑은 지혜로 경계를 두루 비추고, 한번 들은 법은 모두 청정한 신해信解로 알아서 지니고, 법의 성품을 결정해 알고, 마음에는 항상 보살의 미묘한 행을 버리지 않았다.

일체지一切智를 구해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열 가지 힘(十力)과 지혜 광명을 얻고 미묘한 법을 부지런히 구해 싫증을 내지 않고, 바른 수행으로써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 보살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고, 끝없는 큰 서원이 모두 청정했다. 다함이 없는 지혜로 끝없는 세계 그물을 알고, 겁내지 않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고, 끝없는 보살의 모든 수행하는 경계를 알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차별을 보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장엄을 보고,
끝없는 세계의 미세한 경계에 들어가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이름을 알고,
끝없는 중생의 여러 알음알이(解)를 알고,
끝없는 중생의 온갖 행을 보고,
끝없는 중생의 성숙한 행을 보고,
끝없는 중생의 차별한 생각들을 보았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마침내 이사나 마을에 이르렀다. 때마침 승열 바라문은 온갖 고행을 닦으면서 일체지를 구하고 있었다. 사면에 있는 불무더기가 큰 산과 같은데, 그 속에 험준하기 그지없는 칼산이 있고, 승열 바라문은 그 산 위에 올라가 불 속에 투신하는 것이었다.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한 후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바라문이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가 만일 이 칼산 위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면

모든 보살행이 다 청정해질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재난에서 떠나기 어렵고, 재난은 없애기 어렵다. 청정한 법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감관은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불법은 듣기 어렵다. 선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도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 어렵고, 법을 따라 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것은 혹시 마(魔)가 아닐까? 악마가 유혹하는 것이 아닐까? 악마의 험악한 무리가 보살이나 선지식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게 선근의 난을 짓고 수명의 난을 만들어 나의 일체지에 대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나쁜 길로 끌어들이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불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10천천의 범천梵天이 허공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우체국 가는 길

세상은
편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하나
미루나루로 줄지어 서고
사랑의 말들이
백일홍 꽃밭으로 펼쳐지는 길

설레임 때문에
봉해지지 않는
한 통의 편지가 되어
내가 뛰어가는 길

세상의 모든 슬픔
모든 기쁨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까

작은 발로는 갈 수가 없어
넓은 날개를 달고
사랑을 나르는
편지 천사가
되고 싶네, 나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법정 스님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2022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생' 공모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계발하고, 본 회의 발원 취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꽃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2년도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 선발 인원 : 20명 내외
- 지원 금액 : 300만 원(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1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한 우수한 인재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선발하여 지원 가능함.
- 신청 자격(아래 가, 나, 다, 라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구분 | 신청 자격 |
|----|--|
| 가 |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
| 나 |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 & 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 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에 한함 |
| 다 |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
| 라 | *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 학점 4.5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5 이상 학점 4.3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3 이상 |

- 서류 접수 :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 우편 소인까지
- 접수 방법

①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접속 / 3월 7일 공지

② [공지사항] > [2022년 맑고 향기롭게 - 대학 장학생 선발 공고 클릭]

③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서류 준비

④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등기 우편 제출 · 접수

● 제출 서류 안내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1. 장학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초본 (남학생의 경우 군필 여부 기재) 4. 장학금 신청 학생 통장 사본 5.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 & 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예 :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
| 법정 저소득층 * 1~6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 |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자활근로 확인서 4. 한부모가족 증명서 5. 장애연금 · 수당 ·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6.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기타 저소득층 * 1~2 서류 모두 제출 | 1.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소득 분위(구간) 통지서 |
| 추가 (해당 시) | 1.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 2. 각종 수상 실적 등 3. 불교 사찰 & 단체장 추천서 |

- 선정 발표 : 5월 17일(화) 본회 홈페이지, 개별 및 학교로 통보
- 접수처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담당자 앞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일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 발행

오디오북 전문 출판 브랜드인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법정 스님이 남기신 법문 36편을 골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을 출시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이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그동안 보관해 오던 법정 스님의 법문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을 글자로 옮긴 책은 여러 권이지만 스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오디오북은 처음입니다.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은 그동안 글로는 느낄 수 없었던 법정 스님 고유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말이 글로 바뀌면서 삭제되었던 스님의 숨결과 체온을 되살리고 우리를 삶에 대한 스님의 애절한 연민과 간절한 소망까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법정 스님이 여러 곳에서 하신 음성을 담은 것이다 보니, 스님을 바로 앞에서 뵈는 듯한 법문이 있는가 하면 녹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법담 맨 끝자리에서 듣는 듯한 법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장 소음을 삭제하거나 스님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법문 강론 현장에서 듣는 듯한 감동을 오디오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즐겨 들으시던 카탈스 연주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자락과 스님이 생동하는 소리라 일컬어진 새소리를 법문 앞에 붙여 오디오북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오디오북의 인세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후 중권, 하권도 출시 예정입니다.

오디오북 전체 러닝타임은 20시간 49분 47초이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반찬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 살라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 시고자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로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우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회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 / 전송: (02)3672-5947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극락전(법당) 연등 | | 지장전(법당) 연등 | |
|-------------|--------|------------|-------|
| 대등(가족·영가등) | 100만 원 | 영가등 | 10만 원 |
| 가족등 | 10만 원 | | |
| 도량(마당) 연등 | | | |
| 가족등·영가등·수기등 | | | 3만 원 |

●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4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4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 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내용을 시작으로 올려 드립니다.

●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초하루기도 | 4월 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다라니기도 | 4월 2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4월 15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4월 18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4월 24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